

# 중동발 '나프타 쇼크'...광주·전남 산업계 불안 확산

### 사태 장기화 속 수급 차질...연쇄 섰다운' 우려 여천NCC 등 공정 중단...페인트·자동차 직격탄 정부, 수출 제한 '강수'...추경예산 반영 등 추진

중동 사태 장기화되면서 그 여파가 국내 산업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원유 기반 원료인 나프타(납사) 수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석유화학·식품·유통업계 등 안팎에서 '연쇄 섰다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석유화학 기업들이 에틸렌 등 합성수지 생산량을 대폭 줄이거나 중단을 멈추면서 비닐 포장재부터 전자제품, 자동차 내·외장재까지 연이어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트레이디가 코노믹스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제 시장에서 나프타 가격은 1당 850.25달러를 기록

했다. 이는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49.07% 폭등한 수치이며 지난해 대비 39.57% 상승했다. 나프타 가격은 지난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나프타는 원유 정제과정에서 얻는 석유화학 기초원료로 에틸렌 등 기초유분을 거쳐 가공된 플라스틱 수지(PB·PP·PET)가 비닐·용기·트레이 등 포장재로 사용된다. 국내 정유사에서 일부 생산하지만 전체 소비량의 절반 수준은 수입으로 대체되며 이번 중동 사태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국내로 수입되는 나프타는 54%에 이른다. 물류 이동이 장기화되면서 나프타

국내 수급이 불안정해졌고, 때문에 국내 산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나프타 도입이 차질을 빚자 LG화학 롯데케미칼 여천NCC 등 주요 석화 기업들이 일부 설비의 가동을 멈추거나 조정하며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감소에 나서자 식품 업계는 포장재 원료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라면 봉지, 페트병, 즉석밥 용기 등 포장재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안정 속 가격이 폭등하고 향후 공급이 끊기는 상황까지 빚어질 경우 제품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완제품을 생산하고도 포장재 부족으로 출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

성이 높아져서다. 자동차 산업에도 불뚱이 튀었다. 에틸렌을 중합해 만든 플라스틱과 합성 고무 등을 차량 경량화, 연비 향상, 소음 감소를 위해 내외장재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이다. 국내 자동차 및 부품 생산 업계는 현재 에틸렌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없다면서 향후 수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에틸렌과 나프타 등을 주 원료로 하는 페인트 업계도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업계는 페인트 원료인 나프타가 품귀 현상이라 가격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수급 상황 등에 맞춰 가격 인상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 외장에 사용되는 ABS, 폴리프로필렌(PP) 등 석유화학 기반 소재가 이용되는 전자업계 역시 영향권에 들어섰다. 에틸렌 공급이 줄어들 경우 원가 상승과 납기 지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나프타(납사)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나프타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나프타 대체 수입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이번 '추경 추경' 예산에 반영해 기업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윤용성 기자 y01404@gwangnam.co.kr



27일(현지시간)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냉난방공조(HVAC) 전시회 'MCE 2026'에서 삼성전사 직원이 참석자들에게 수상 제품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 삼성전자, 유럽 최대 공조 전시회서 우수상 석권

### MCE 2026서 8개 부문 수상...글로벌 HVAC 기술력 입증

삼성전자가 오는 27일(현지시간)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냉난방공조(HVAC) 전시회 'MCE 2026'에서 가정용부터 상업용까지 전 영역을 아우르는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며 주요 부문 상을 휩쓸었다. 삼성전자는 가정용 무풍 에어컨부터 고효율 히트펌프, 상업용 시스템 에어컨에 이르는 폭넓은 라인업에서 8개의 우수상을 석권하며 글로벌 공조 기술력을 입증했다. 사용자의 생활 패턴과 공간 환경에 맞춰 특화된 기류를 선택할 수 있는 2026년형 'AI 무풍콤보 프로 벽걸이' 가정용 에어컨이 2개의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제품은 '모션 레이더' 센서로 사용자의 위치와 활동량을 감지해 직접풍과 간접풍 등 최적의 기류를 고해상도 선별적으로 제어하는 'AI-모션 바람' 기능을 탑재했다. 또 기존 제습 기능 대비 에너지 소비량

을 최대 30% 절감하는 '패적제습' 기능으로 온도와 습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화석연료 보일러를 대체할 기술로 주목받는 히트펌프 냉난방시스템 'EHS' 라인업에서는 'EHS 올인원'과 'EHS 캐스케이드 컨트롤러'가 나란히 상을 받았다. 'EHS 올인원'은 물과 공기를 동시에 활용해 냉난방과 온수까지 제공하는 히트펌프 시스템이다. 냉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로 물을 데우는 '열 회수' 기능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최대 2배 이상 높였으며, 영하 25°C에도 난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다양한 기후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 'EHS 캐스케이드 컨트롤러'는 히트펌프 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통합 제어 솔루션이다. 최대 8대의 히트펌프가 동시에 작동하

는 환경에서도 실시간 부하에 따라 필요한 대수만 정밀하게 가동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방지한다. 가정용 EHS 실내기인 'DVM 하이드로 유닛'과 '클라이밋 허브'도 함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두 제품은 실내기에 탑재된 7형 스크린으로 집안 곳곳의 냉난방 기기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간편하게 제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형 상업 공간을 위한 고효율 시스템 에어컨 'DVM' 라인업은 총 2개 제품이 우수상을 수상하며 혁신 기술력을 입증했다. 삼성전자 DA사업부 에어솔루션사업팀 임성택 부사장은 "이번 MCE 어워드 수상은 삼성전자의 공조 기술이 혁신성과 에너지 효율, 지속가능성 모든 면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임을 확인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 환경을 더욱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차별화된 공조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한전, 전기에너지 효율향상 경진대회 연다 산업·문화계 협력...현장 중심 에너지 절감 실천 사례 확산

한국전력공사는 사회 전반의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을 위해 산업계와 문화계가 함께하는 '전기에너지 효율향상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한전기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4개 기관과 협력을 추진한다. 참여 기관들은 각 산업·문화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과 공연장의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 중심의 에너지 절감 실천 사례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산업계에 집중했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문화시설까지 참여 범위를 넓힌 점이 특징이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실시해 159개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총 10.3GWh의 전력을 절감했으며, 이는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약 1500t 수급을 대체하는 효과로 이어져 에너지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소속 공연장이 새롭게 참여 대상에 포함된다. 공연장 특성상 조명·음향 등 전력 사용 비중이 높은 만큼, 효율적 운영을 통해 절감

여지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동시에 공연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에너지 절약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참여 대상은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공연장으로,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한전기협회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경진대회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진행되며, 전력 절감 실적과 우수 사례 등을 종합 평가해 14개 기관을 선정하고 총 3800만원 규모의 상금이 지급된다. 한전 관계자는 "중동발 에너지 위기 심화로 현장 중심의 절약 실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경진대회를 비롯해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등을 통해 국가 에너지 위기 대응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 광주상의, 청년 일경험 거점 맡는다

### 3년 연속 호남권 지원센터 선정...미취업 청년 연계 강화

광주상공회의소가 고용노동부 '미래 내일일경험사업' 권역별 지원센터에 3년 연속 선정되면서 지역 청년의 실전형 취업 기회 확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5일 광주상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6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권역별 지원센터' 공모에서 호남권 우 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광주상의는 2024년부터 3년 연속 호남권 거점 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미래내일일경험사업'은 15~34세 미

취업 청년에게 직무 중심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 채용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원만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력 중심 채용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청년층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광주상의는 올해 총 2억원 규모 예산을 확보해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센터는 참여기업 및 운영기관 발굴, 직무 특화 프로그램 설계 컨설팅, 사업 흥

보,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권역 내 일 경험 생태계 확산을 담당한다. 앞서 광주상의는 지난 2년간 참여기업 184개사, 운영기관 28개소를 발굴하고 대학·고용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기업 수요를 반영한 직무 다변화와 프로그램 고도화에 초점을 맞춘 계획이다. 특히 양질의 참여기업 확보와 맞춤형 컨설팅, 운영기관 지원, 현장 의견 수렴을 연계해 청년과 기업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단순 체험을 넘어 채용 연계형 일경험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